

작년 전남에 터 잡은 귀농어·귀촌가구 감소

통계청, 귀농어·귀촌인 통계 발표

귀농 일년새 14.9% 줄어

귀어 194가구 그쳐 30.5%↓

대부분 '나홀로' 전입가구

전남지역 귀농·귀어·귀촌가구가 1년 전과 비교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귀농·귀촌가구는 10가구 중 8가구, 귀어 가구는 7가구가 '나홀로'인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귀농어·귀촌인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전남의 귀농가구는 1516가구로, 1년 전(1781가구) 대비 14.9% 감소했다. 전남 귀농가구 수는 전국에서 경북(1537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특히 시·군 기준 귀농인 규모 상위 5개 지역 중 전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남군(123명)과 고흥군(120명)이 각 3위·4위에 이름을 올렸다. 1인 가구는 전체 82.8%인 1256가구에 달했다. 2인 가구는 186가구, 3인 가구는 46가구, 4인 이상 가구는 28가구다.

귀농인은 1885명으로 이 중 귀농인은 1538명, 나머지 347명은 동반가구원이다. 연령별로는 60대가 631명으로 가장 많고, 50대(521명), 30대 이하(358가구) 등 순서다. 작물재배 중인 귀농 가구는 1017가구이며, 이들 가구의 평균 재배면적은 3606㎡다. 0.5ha 미만인 868가구로 가장 많았다. 순수 자경가구는 571가구(2898㎡), 순수 임차가구는 371(4078㎡), 자경과 임차 혼합 형태 가구는 75가구(6669㎡)다. 재배작물로는 농도 전남답게 논벼가 401가구로 최다를 차지했다. 이어 채소(357가구), 과수(281가구) 등 순으로 집계됐다. 전남의 귀어가구는 경우 지난해 194가

구를 기록,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다만, 전년(279가구)과 비교했을 때 30.5% 감소했다. 귀어진 규모 전국 상위 5개 시·군에는 여수시(44명·3위)와 완도군(25명·5위)이 랭크됐다. 1인 가구가 78.3%(152가구)에 달했으며, 귀어인은 248명(귀어진 203명, 동반가구원 45명)이었다. 전남 귀어인의 연령별로는 60대가 78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50대(73명), 30대 이하(49명) 등 순이다. 전남 귀촌가구는 지난해 2만7635가구를 기록했다. 이는 1년 전(2만8385가구)과 견줘 2.6% 줄어든 수치다. 1인 가구가 2만3143가구로 83.7%에

육박했다. 전입사유로는 결혼, 분가 등 '가족'이 8389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업(8302가구), 주택(5866가구) 등 순이다. 귀촌인은 3만3660명, 이 중 20대 이하가 7784명으로 가장 많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귀농·귀어·귀촌가구가 32만7456명으로 전년보다 3.1% 늘었다. 귀농·귀촌·귀어인은 43만1777명으로 5.0% 늘었다. 이 중 귀촌가구는 31만 8658가구, 귀촌인은 42만2789명으로 전년보다 각 4.0%, 5.7% 증가했다. 귀촌 가구와 귀촌인 수 증가는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ECONOMY

2025년 6월 25일 수요일

광주상의, 경제포럼 성료

김상근 교수 초청 강연

광주상공회의소는 24일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제279차 광주경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기술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복합적 위기가 겹치는 불확실성 시대 속에서 기업 리더가 갖춰야 할 리더십의 지혜를 얻기 위해 마련됐다. 인문학 강연 대가인 김상근 연세대학교 교수를 초청해 '넘볼 수 없는 자이를 만드는 초격차 리더십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상근 교수는 삼성전자 권오현 전 회장과의 오랜 교류를 바탕으로 초격차 전략의 실제 사례와 고대 그리스 고전에서 통찰한 리더십 핵심 덕목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글로벌 초경쟁 시대에는 단순한 개선이나 근소한 우위만으로 살아남기 어렵다"며 "기술력은 물론 인제, 조직 문화, 리더의 철학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서 '격이 다른 차별성'을 갖추는 것이 지속가능한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지 품격"이라고 강조했다.

또 "리더가 절대로 범하지 말아야 할 실패는 미래를 망쳐놓는 것"이라며 "초격차 리더가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은 미래를 준비하는 통찰력, 과거의 답습을 과감히 끊는 결단력, 성과를 지속시키는 실행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리더는 컴퓨터의 CPU처럼 조직의 보이지 않는 중심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끊임없는 자기 업그레이드를 통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고대 그리스 델피 신전의 일곱 현자들이 남긴 신약을 인용, "모든 문제의 해답은 결국 스스로를 돌아보고, 변화 앞에서 결단을 내리는 리더의 용기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맞춤 일자리 매칭...내일 '광주 함께 JOB 페스타'

광주전남중기청, 30일까지 온라인 일자리박람회도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역 내 구직자들의 취업 기회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4일 광주전남중기청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시작, 오는 30일까지 '2025 상반기 광주·전남 합동 온라인 일자리박람회'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 전남도와 공동 개최중인 온라인 일자리박람회는 광주시 인중기업, 전남 동부권·서부권 주력산업관 등 지역 내 우수 중소기업 120개사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구직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일자리박람회 홈페이지(http://광주전남일자리박람회.com)를 통해 지역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AI자기소개서, NCS 직업역량 진단 등 취업에 도움을 줄 취업지원서비스도 무료 제공한다. 특히 전문 컨설턴트가 1대1 피드백을 제공하는 자기소개서 첨삭 컨설팅도 진행 중이다.

박람회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구직자는 일자리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운영사무국(062-510-0923)이나 광주전남중기청(062-360-914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중기청은 2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5 광주 함께 JOB 페스타'를 연다.

이번 박람회는 청년, 중장년, 취업을 희망하는 폐업 소상공인, 경력단절여성 등 다양한 대상이 참여할 수 있는 '통합형 일자리박람회'다. 기존 1대1 현장면접을 진행하는 현장채용관, 면접·이력서 컨설팅 등 취업역량 강화 서비스뿐 아니라 일자리정책관, 상생Play관, 내 일(job) 리셋관 등 맞춤형 부대행사도 준비했다.

구직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이력서 등을 지참해 현장을 찾으면 참여 가능하다.

박종찬 광주전남중기청장은 "이번 온·오프라인 일자리박람회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구직자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구직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원광신협은 최근 본점에서 자산 6000억원 달성 기념식을 가졌다.

'창립 48년' 광주원광신협 자산 6000억 달성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금융 실현"

광주원광신협은 최근 본점에서 자산 6000억원 달성 기념식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유영희 광주원광신협 이사장은 "조합원 여러분의 믿음과 지역사회와의 성원이 있었기에 오늘의 성과가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따뜻한 금융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신협이 되겠다"고 말했다.

기념식은 1977년 창립 이후 48년 만에 이룬 자산 6000억원 달성을 기념하고, 신뢰와 지지를 보내준 지역사회에 감사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원광신협은 서민금융 지원과 소상공인 대상 '어부바플랜', 청년·고령층 맞춤형 금융상품, 비대면 채널 강화,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제 육성 전략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번 자산 6000억원 달성은 광주·전남 지역 신협 중에서도 주목받는 성과로 평가

된다.

유영희 광주원광신협 이사장은 "조합원 여러분의 믿음과 지역사회와의 성원이 있었기에 오늘의 성과가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따뜻한 금융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신협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원광신협은 현재 본점을 포함 4개 지점에서 27명의 임직원이 약 2만 3000명의 조합원과 함께하고 있다. 48년 연속 흑자 경영을 이어오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자산 성장률은 12%에 달한다. 특히 신협중앙회 종합목표관리평가에서는 2023년 종합경영평가 '경영대상', 2024년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6년 연속 경영실태평가 1등급을 유지해 우수한 경영 역량을 대외적으로 입증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건강기능식품 1+1 혜택"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27일부터 29일까지 지하1층 본매장에서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인 GNC의 전품목 1+1 행사인 '슈퍼워크'를 실시한다.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 건강을 관리하고자 상품을 찾는 고객을 위한 이번 행사에서 종합비타민제, 프로바이오틱스, 밀크시슬 등 각종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GNC 천지인의 홍삼농축액, 홍삼농축, 홍삼정편 등 다양한 홍삼제품도 '1+1 행사'로 만나볼 수 있다.

'전남 텍스터' 출범...디지털 수출 전환 시동

KOTRA 공동 농수산물품 수출 10억달러 달성 촉진

상품 콘텐츠부터 해외 판로 개척까지 원스톱 지원

전남도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24일 나주 혁신도사에서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 '전남 텍스터' 개소식을 열고, 디지털 기반 수출 지원 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센터 개소는 농수산물품 수출 10억 달러 달성을 앞당기고, 지역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무역 인프라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이번 행사에는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이정훈 코트라 부사장 겸 디지털무역 투자본부장을 비롯해 안상현 나주시시장, 김경호 (재)남도장터 대표이사, 이성희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

우승 전남장조경제혁신센터 본부장, 수출 기업인, 지역 대학 교수진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 텍스터'는 전남도와 코트라가 공동으로 추진한 디지털 수출 지원 플랫폼으로, △수출상품 콘텐츠 제작 △글로벌 플랫폼 입점 등록 △바이어 발굴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무역 전문 인력 양성 △무역 창업 지원 등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센터는 특히 전남의 농수산물 생산자단체, 중소기업, 농업법인, 남도장터 입점 업체 등 약 2000개 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 제품 촬영과 영상 콘텐츠 제작, 해외

바이어 연결, 수출 상담 등 실질적 수출 활동을 밑거름 지원할 계획이다. 초기 수출을 준비하는 소규모 기업에게는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실습형 교육과 컨설팅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전남 텍스터는 지역 대학과 연계해 청년 디지털 무역 인재를 양성하고, 무역 분야 취업·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사무공간과 실전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창업 허브 기능도 수행한다.

전남도는 이번 센터 개소를 계기로 전통적인 수출 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 기반의 B2B·B2C 수출 다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인 아마존, 알리바바 등과 연계해 확대하고, 바이코리아를 통한 해외 상품 노출도 강화해 국내 중소기업의 디지털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ws1@

aT-카카오, 농수산물 유통 혁신

온라인 도매시장·특돌 연계 협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4일 서울 aT센터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종합상황실에서 국민메신저 플랫폼인 카카오톡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사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가 소득 제고,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상품종 발굴과 판로 확대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농수산물 유통 효율화를 위한 협조체제도 함께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세계 최초로 운영 중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과 연 매출이 약 9조원에 달하는 카카오톡의 소매플랫폼 역량이 결합하는 사례로, 농산물 유통 구조 혁신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23년 11월 출범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과 유통단계 단축을 목적으로 구축한 차세대 유통 플랫폼이다. 현재 하루 평균 30억원 이상 거래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유통 효율화와 신규 상품 발굴 등을 통한 내실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선별된 우수 상품이 카카오톡의 소매플랫폼인 '특돌'을 통해 본격 유통될 계획이다. 다음달부터 사과, 멜론, 복숭아 등 계절과일을 시작으로, 다양한 할인 혜택과 함께 판매가 이뤄진다.

홍문표 aT 사장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카카오톡과 손잡고 농수산물 유통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 양사의 역량을 모아 상품종 소개와 프로모션 등 다양한 협업을 추진해 농어민의 소득을 높이고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상생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은행, '마이데이터 2.0' 서비스 오픈

동의 절차 간소화·자산 연결 범위 확대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편의성을 더한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24일 밝혔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금융회사를 포함한 다양한 업체에 흩어져 있는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현황·소비패턴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등 자산·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금융생활 전반을 통합 관리할 수 있어 흔히 '내 손안의 금융비서'로 불린다.

이번에 선보인 '마이데이터 2.0'은

기존 서비스 대비 고객 편의성과 정보 활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연결 가능 자산의 개수 제한이 사라져 정보 수집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또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마이데이터 가입 유효기간도 최대 5년까지 연장되면서 사용 절차가 간편해졌다.

광주은행은 지난 2021년 7월 지방은행 최초로 마이데이터 분허가를 획득한 이후 2022년 1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6월 현재 이용 고객 수



는 약 48만 명에 달한다.

주요 기능으로는 △월별 소비 내역을 분석해주는 '내 금융 캘린더' △실제 저축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1억 모으기' △KCB와 제휴해 본인의 신용점수를 확인하고 직접 개선할 수 있는 '신용올리기' 등이 제공되고 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